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 11.(월) 12:00
(지 면) 2026. 5. 12.(화) 조간

전국 빗물받이 정비 우수사례 한 곳에 모아, 여름철 침수 예방에 활용한다

- ‘2025년 빗물받이 정비 우수사례집’ 지방정부 배포
- 침수 위험지역 중심으로, 우기 전 빗물받이 집중 점검·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빗물받이 정비 우수사례집’을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우기 전까지 빗물받이 정비를 강화한다.

빗물받이는 도로나 주거지역에 내린 빗물을 하수관로로 유입시키는 핵심 배수시설이다. 빗물받이가 담배꽂초, 낙엽, 토사 등으로 막힐 경우 짧은 시간의 집중호우에도 도로 침수와 지하공간 역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기습적인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평상시 빗물받이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침수 예방 대책으로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408만여 개소의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점검·청소한 결과 정비율 241.9%*를 달성한 바 있다.

* 빗물받이 1개소당 평균 2.4회 이상 점검 또는 청소를 실시했음을 의미

이번 우수사례집에는 지방정부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진행한 일제점검, 민·관 합동 정비, 안전신문고 신고 활용, 시설 보강 등 다양한 현장 사례를 담았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우수사례를 참고해 전통시장,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지하차도 주변 등 침수 위험지역의 빗물받이를 우선 정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지방정부의 빗물받이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26억 원을 지원했다.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활용해 빗물받이 점검과 청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인 배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결 관로 준설, 배수시설 정비 등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주변의 막힌 빗물받이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지역 주민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관리 체계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빗물받이는 작지만 우리 주변 곳곳의 침수 피해를 막는 첫 번째 방어시설”이라며, “정부는 빗물받이 정비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전국에 확산시키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정비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여름철 침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상훈 (044-205-5110)
		담당자	사무관	류해춘 (044-205-5125)
		담당자	사무관	오병곤 (044-205-5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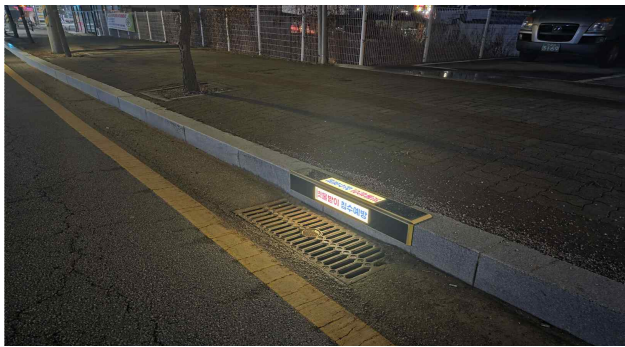




(부산 강서구) 빗물받이 위치 알림 스티커형



(부산 동구) 맨홀정비 도구함 설치형



(충남 홍성군) LED경계석 및 홍수비상구형



(부산 서구) 민간협력 환경 정비형



(부산 수영구) 자원봉사 참여 정비형



(충남 아산시) 개량형 빗물받이 LED경계석 형



(충남 논산시) 태양광 위치표시 우수관로 정비형



(부산 남구) 노인일자리 연계 점검형